

4>> 학교기업으로 시작한 셀란, 폐업



6>> 영통역 셔틀버스 이용률 저조



2017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기간 : 2017. 6. 1(목)~6. 27(화)
대상 : 서울·국제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성적 열람 및 공시기간 : 2017. 7. 3(월)~7. 5(수)
강의평가 실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접속 → 수업/성적/상감 → 강의평가 클릭



양 캠퍼스 대동제

대동제가 한창인 5월 24일 풍물굿패 연합 학생들이 음악과 함께 네오르네상스관 앞을 지나가고 있다. 국제캠퍼스에선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간, 서울캠퍼스에선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간 진행된 다양한 행사로 떠들썩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사진= 박예령 기자)

Newsmaker

청와대 한방 주치의 임명자
김성수(경희한방병원) 원장



한의학 예방치료로 대통령 건강 책임진다

정현진 기자 jhj881@khu.ac.kr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 의무 시스템이 지난 정권의 '비선진료'로 무너진 지금, 대통령 주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다. 지난 26일, 우리학교 한방병원 김성수(한의학 1969) 원장이 청와대 한방 주치로 위촉됐다. 한의사로 40여 년의 세월을 걸은 김성수 원장을 만났다.

식 의무 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김 원장은 “한방 주치의 제도는 한의학의 전문화 뿐 아니라 양 의학과 한의학 간 통합 진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입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침 치료의 효과와 예방 의학적로서의 우수성이 인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명으로 양의학과 한의학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의무 시스템 정상화에 대해 “국가원수는 개인이 아니기에 비선진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 의무실을 통해서 절차대로 진행되는 진료체계로 바로잡을 것을 양방 주치의와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학부시절부터 이어온 환자 곁에 서겠다는 꿈 대통령 주치로 이어나간다

“한방 주치의로서는 한의학적 예방치료와 항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춰 진료할 생각이다”며 계획을 밝힌 그는 “한의사로서는 환자 진료에도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싶은 마음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대학생활 중에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김 원장의 공식 일정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미국 순방으로 시작된다. 대통령 주치로 활동하는 중에도 다른 환자들과의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김 원장의 행보가 기대된다.

'캠퍼스 타운' 경희와 회기의 상생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박예령 기자 cyon03@khu.ac.kr

【서울】서울시에서 모든 대학가를 '캠퍼스타운'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에 우리학교가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과 지역 교류를 꾀할 대학의 '사업제안'을 서울시가 모집해 지원하는 장기사업이다. 30여개 대학의 사업제안 중 우리학교를 비롯한 13개 대학이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회기동에서는 우리학교 지구사회봉사단(GSC)의 '회기동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우리학교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융합형 프로그램'을 시행, 매년 5억 원씩 3년간 총 15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GSC의 '회기동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의 두 주축은 소프트웨

어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프로그램이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다시 '공유형 상점' 계획과 '골목커뮤니티 활성화' 계획으로 구성되고, 하드웨어 프로그램은 '골목 특화사업'과 '도로 디자인 개선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회기동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지역과의 교류에서 느낀 한계를 타개하고자 기획됐다. GSC는 2009년 발족된 이후부터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주민자치학교, 사랑의 물레산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5년에는 보다 특색 있는 활동을 하고자 '회기동 사람들'이라는 학생 모임도 만들었다. '회기동 사람들'은 지역축제 개최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나, 플라마켓과 버스킹이 주를 이뤄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GSC 김윤식 연구원은 “주민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발적인 관계만 형성되는 것에 고민이 많았다”며 “의미 있는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던 차에 서울시의 캠퍼스타운 사업을 보고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우리학교만이 전 공연계와 환경개선, 관계형성과 골목상권까지 고려한 복합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며 “사람을 남기는 사업이 목표인 만큼 청년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주민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 말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GSC 학생모임인 '사이다'를 주축으로 운영된다. '사이다'는 '회기동 사람들'과 청년상인, 추가로 모집할 지원단으로 구성된다. 공유형 상점은 하나의 점포를 시

간과 요일 별로 여러 개의 사업자가 나눠서 운영을 하는 상점으로 팝업스토어, 타임 스토어 그리고 에브리원 스토어로 나뉜다. 팝업스토어는 기존 점포의 유휴시간과 유휴공간을 이용한 상점 내 상점을 말하며 리모델링 비용과 임대료를 모두 지원할 예정이다. 타임 스토어는 한 개의 점포에서 4-5팀의 상인들이 시간과 요일을 배분하여 운영하는 상점이다. 타임스토어에 입점하는 상인들은 건물운영까지 맡게 된다. 에브리원 스토어는 구형이나 마을협동조합 소유의 점포와 같은 공공소유의 점포에 단기간 임대 신청해 창업하는 상점이다. 김 연구원은 “공유형 상점으로 사용할 점포 공모와 동시에 기획안을 모집할 것”이라며 “추후 창업아이템을 공모해 참가상인들 중에서도 일부 선정할 예정”이라 말했다. **▶8면으로 이어짐**

연이은 사업 선정, 이공계열 발전 계기 되나

국고지원사업 선정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신정인 기자 sj0201@khu.ac.kr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사업, 그리고 공과대학 혁신사업은 우리학교가 이번학기 선정된 이공계열 관련 사업들이다. 지난해 프라임사업에서 고배를 마셨던 경험을 딛고 우리학교의 이공계열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관련 사업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살펴봤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센터(IITP)가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은 S/W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학생·기업·사회의 S/W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사업 선정을 통해 우리학교는 최대 11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에는 10억 원을 지원 받았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2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평가에서 사업 연장 승인을 받게 되면 추가 2년 동안 4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대학은 '삼수' 끝에 S/W중심대학에 선정됐다. 올해 S/W 관련

학과의 인원 증설과 '소프트웨어적 사유' 과목 개설, '경희S/W나눔봉사단'의 활동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SW융합학과에 더해, 융합전공 확대되나** SW 중심대학 사업 예정사항에는 ▲SW융합단과대학 설립, ▲'K-S/W인재' 전형 신설 및 장학금 전액 지원 ▲KHU S/W부트캠프 프로그램 개설 ▲'Biomedical 빅 데이터 분석' 학·석사 연계 특성화 과정 신설이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계획은 '소프트

웨어융합단과대학 설립'으로 올해 신설된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학과를 단과대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융합단과대학에서는 빅데이터, 예술디자인, 로봇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를 통한 융합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정보대학 교수진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 대표 간의 간담회가 한 차례 진행됐지만 향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없다. 2019년부터는 'K-S/W인재 전형'을 신설해 30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3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 카카오톡 ID : 대학주보
- ▶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 ▶ 트위터 : @khunews
-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전문가 칼럼

혁명 이후, 더 치밀한 견제가 필요한 때
김민웅(교육대학원) 교수 >>7면

